좌절한 사람을 치료하는 특효약은?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미숙아, 냉큼 약국에 다녀오너라" 할 때 '냉큼'과 "미숙아, 왜 이렇게 성큼 걷니?" 할 때 '성큼'은 발음은 비슷하나 뜻이 분명 다른 말이지요. '성큼'은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곧'이란 뜻이며 '성큼'은 '발을 높이 들어 걷는 모양'이지요.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말 가운데 값과 삯 이란 말이 있지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버스 값이 얼마예요?" 라고 묻는 경우를 보죠. 이 사람은 버스 탄 요금을 묻는 게 아니라 버스 사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 되고 말아요.

'값'은 물건에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를 뜻하기 때문이죠. '값'은 "값이 비싸다" "값을 치른다"고 할 때처럼 물건을 사고 팔 때 주고받는 돈을 의미하죠. 이밖에도 "애쓴 값도 없이 수포로 돌아갔다"와 같이 노력, 희생에 따른 보람이나 대가 등을 뜻하기도 하고요.

'삯'은 "왕복 삯만 100만원이 들었다" "삯을 받고 일하다"처럼 어떤 물건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주는 돈, 또는 일한 데 대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의미하죠. 따라서 '버스 삯' '택시 삯'으로 혹은 버스비나 택시비로 쓸 수 있어요.

'-비'는 교통비, 생활비 등처럼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비용의 뜻을 더하는 말이므로 '버스비' '택시비'라고 써도 문제는 없지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오헨리作 '마지막 잎새'

오헨리는 세계 3대 단편 작가 중 한 사람인데 '마지막 잎새'는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죠. 이 작품은 현실적 고통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고 휴머니즘을 통한 예술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가 삭막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얼 말하고자 했는지 생각해 보고 담쟁이 잎의 상징적 의미도 생각해 보세요.

1900년 겨울 뉴욕의 한 거리에서 존시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배반당하고 깊은 슬픔에 빠진다. 이러한 존시를 수전과 베어먼은 안타깝게 지켜 볼 뿐 달리 도움을 주지 못한다. 존시가 폐렴으로 심하게 앓게 되고, 의사는 존시의 병이 의학적인 기술보다는 인간적인 의지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존시가 몹시 앓을 즈음 베어먼은 가난 속에서도 예술적 혼을 기울여 그림 그리기에 열중한다. 그러나 베어먼의 그림은 그 시대 감상자의 기호에 맞지 않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 존시의 약값을 벌기 위해 3달러에 자신의 그림을 팔고 돌아온 베어먼은 심하게 갈등한다.

존시는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가운데 창밖의 담쟁이 잎에 자신의 운명을 걸게 된다.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게 되는 날 자신도 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떨어지는 잎새를 기운 없이 바라본다.

바람이 몹시 불던 다음 날, 존시가 담쟁이 잎을 확인하려 하자 수전은 잎이 모두 떨어졌으리라 생각하며 커튼 걷기를 주저한다. 계속되는 존시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커튼을 걷고, 곧이어 존시와 수전은 담쟁이에 잎 하나가 꼭 붙어 있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 모진 바람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잎을 보고 존시는 삶의 의욕을 찾게 된다.

사랑 · 예술 · 삶의 진정한 가치 '담쟁이 잎'으로 상징한 명작 단편

이 때 눈길 모퉁이에 영구차가 도착해서 죽어 있는 화가 베어먼을 싣고 간다. 동네 사람들은 미치광이 화가가 술을 먹고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전은 베어먼이 담쟁이의 잎을 밤새도록 그리고 죽은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림만 그리던 화가였다고 비판하는 존시에게 베어먼이야말로 훌륭한 예술가였다고 말해 준다.

'마지막 잎새'는 존시의 사랑과 실연, 삶에 대한 의욕 상실과 회복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와 함께 베어먼의 예술 작품 완성을 위한 욕망과 좌절, 그리고 명작 완성의 과정을 동시에 그리고 있지요. 존시가 삶의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 외면당하는 현실 때문이며, 베어먼이 술에 취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혼을 담아 그린 그림이 단 3달러에 팔리는 현실 때문이겠죠. 순수한 사랑과 예술 혼이 현실의 논리에 의해 외면당할 때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작품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어 감동을 줍니다. 상처 입은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생명력을 환기시키는 담쟁이 잎이나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술이 아니라, 인간적 사랑에 있음을 보여 주죠. 베어먼이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이웃에게 등불을 빌려 혼신의 힘을 다해 담쟁이 잎을 그리는 행위는 존시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죠. 이때 베어먼이 그린 담쟁이 잎은 자기희생 정신의 상징이 아닐까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 안으려는 인간적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비바람이 부는 날 자신의 목숨을 바꾸는 잎을 그리지는 않겠지요. 비로소 베어먼이 욕망하였던 예술 작품의 완성을 이룬 것이라 생각해요. 베어먼은 서툴고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렸던 화가이기 전에 훌륭한 예술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술과 사랑,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주제를 펼쳐 보이며 진정한 사랑과 예술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성취될 수 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지요. 삭막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환기시켜 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Q: 사춘기에는 왜 화가 자주 날까요?

(ID:중딩)

A: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는 지금 어른이 되는 길목에 서 있답니다. 신체적인 변화 이외에도 너무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아주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할 거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지금 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성장해나가면서 부모님보다는 자기 의지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이지요.

많은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이르면 많은 갈등을 겪곤 한답니다. 우리 친구도 사춘기 문제를 강하고 냉철하게, 또, 주저하는 일 없이 무난히 극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엄마아빠와 장난을 쳐가면서 재미있게 놀던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도 새롭고 낯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답을 찾아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모험과 같은 일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항상 꿈은 갖되,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가 안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 보면 우리 친구에게 꼭 필요한 지적을 사랑이란 잔소리로 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친구에게 부모님과 즐겁게 맘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보기를 충고해 봅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되길 바랍니다.

(사이버 상담원)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산야초 향(香) 잎에 7년 숙성황토

달마도량 거창 달마사 **뽀얀 미백 돌려줘!!!**

지난 7년전 신문과 방송언론을 통해 황토달마가 처음으로 알려진 일이 있다. 그 귀한 재료가 반죽되어 산야초 향 재료 속에서 장장 7년 동안 숙성되었다. 얼마전 그 황토를 달마조각을 위해 꺼내던 날 황토가 얼굴과 손에 팩이 되어 뽀얗게 되어 서로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냥 황토팩이 아니다. 산야초 머금고 얼고 녹아 7년 숙성된 팩이다. 지금 달마사에서는 바빠진 이유가 있다. 검고 주름진 피부가 평생 햇빛 한번 안본 사람처럼 되었다고 이웃주민들이 찾아 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잔주름이 제거되어 놀라워 하며 뽀하얀 피부를 기다리는 분에게 희소식이 되었다.

크기(35X52cm)달마복등

청오스님은 맑고 밝은 얼굴로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것 또한 마음을 정비하는 수행이 될것이라고 했다.

집안 대대로 佛母일 해와 황토달마대사 무료 보급도 산야초 원료로 태우지 않는 향 보급으로 머리 맑고 피로회복 효과

■ 7년 숙성 아미수 황토팩 특징

1.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자연팩 화장독을 제거하여 지금보다 더 노화되지 않고 사는 비결.
2. 청오스님이 직접 만든 수제품 맷돌에 갈아 풍구에 날려 물에 앙금 제거 후 7년 동안 산야초에 숙성으로 금쪽같은 팩이다.
3. 한정품(대량생산이 아님) 미백과 잔주름 제거에 탁월한 효능.

아미수팩 녹차1통 300g - 3만원
(2통 이상은 팩, 붓, 아미수물, 배송비 무료)
구입문의 055)941-1083 010-4595-0017

덕유산 달마사
- 주소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번지
- 매주 일요일마다 달마사에서는 무료황토팩 체험교실이 운영됩니다.
- 계좌번호 : (농협) 841067-52-031220 김정환